

금장대(金藏臺) 공간의 심상지리(心象地理) 연구*

신상구**

- 차 례 -

1. 서론
2. 심상지리(心象地理), 공간(空間) 인식의
 바로미터(Barometer)
3. 심상지리의 관점으로 본 금장대(金藏臺)
 - 3.1. 일망무여(一望無餘)한 승지(勝地)
 - 3.2. 인간 삶의 부질없음을 인식하는 공간
 - 3.3. 죽음을 통한 자기존재의 인식
4. 결론: 금장대 공간에 대한 심상지리적 인식의 변화

*이 논문은 위덕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교비)를 지원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위덕대학교 자율전공학부 조교수, sgshin@uu.ac.kr

[국문 초록]

금장대는 경주의 여덟 가지 기이한 현상(三奇八怪) 중 하나이다. 그 경치가 너무나 빼어나 하늘을 지나가는 기러기들이 쉬어갔다고 하여 금장낙안(金丈落雁)이라 불리워지던 곳이며, 경주의 서쪽에 있기에 서방정토로 인식하던 곳이다.

하지만 금장대에는 빼어난 경치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선사시대의 암각화를 비롯해 금장사지 등의 유적이 남아있고, 임진왜란 때는 경주읍성을 탈환하기 위한 전초기지였으며, 선비들의 유람처였다. 또 금장대 아래 비탈진 절벽 주변으로 예기청소(藝妓淸沼)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은 김동리의 단편소설인 <무녀도(巫女圖)>의 배경이 되는 곳이다. 이처럼 금장대는 여러 유적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화랑들의 맹세를 담은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이 발견되었기에 화랑들이 수련하던 도량이기도 했다.

본 연구는 시대를 달리하면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던 금장대를 중심으로 역사·문학자료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심성지리적(心象地理的)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심상(心象)은 마음으로 그려지는 느낌을 말한다. 심상의 이러한 개념은 대상을 개별성과 특수성에 기인하여 사물을 심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전체주의의 관점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아니라, 개별적인 것이나 특수한 것을 인정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논문의 2장에서는 공간을 바라보는 바로미터로서의 심성지리의 개념을 살폈고, 3장에서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유록(遊錄)과 한시(漢詩)와 임난일기(壬亂日記), 그리고 김동리의 무녀도(巫女圖)를 중심으로 심상지리적 관점에서 금장대 공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결론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른 금장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살폈다. 금장대는 삶과 죽음, 그리고 인간 삶의 무상함과 부질없음, 생존을 위해서, 삶의 가치를 찾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이루어지던 공간이면서도 ‘나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죽음도 삶 이상으로 소중한 것임을 자각하는 그러한 공간이었다.

주제어 : 金藏臺, 心象地理, 西方淨土, 巫女圖, 巖刻畫, 金藏臺戰鬪, 壬辰倭亂

1. 서론

인류의 문명은 하천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다. 하천이 고대 인류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문명의 발생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조선의 왕경인 서울이나 신라의 왕경 경주, 백제의 부여가 모두 그렇다.

신라의 왕경, 경주는 하천을 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려하고 찬란한 문화를 이룬 도시이다. 시가지를 중심으로 서천, 남천, 북천이 에워싸고 있으면서, 도시가 발달하기 위한 충분한 원동력을 주었다고 보여진다. 특히 북천과 남천이 합류하여 영일만으로 이어지는 형산강의 본류인 서천은 경주의 젓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서천을 두고 동서를 나누어 보면, 동쪽에는 “절들은 하늘의 별처럼 펼쳐져 있고, 탑들은 기러기 떼처럼 줄지어섰을”¹⁾ 만큼 화려한 왕경의 중심지로서 찬란한 신라의 문화유적이 남아 전하며, 서쪽은 고분과 분묘, 그리고 절터만이 남아 전한다. 그 곳에서 특별히 눈에 띄

1) 一然, 『三國遺事』 권3, <原宗興法>, “寺寺星張 塔塔雁行”

는 공간이 바로 금장대이다.

금장대는 경주의 여덟 가지 기이한 현상(三奇八怪)²⁾ 중 하나로, 그 경치가 빼어나 경주의 하늘을 지나가는 기러기들이 쉬어갔다고 하여 금장낙안(金丈落雁)이라 불리워지던 곳이다.

금장대는 빼어난 경치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선사시대의 암각화를 비롯하여 신라시대의 사지(寺址)³⁾, 그리고 조선시대 정자(亭子)가 있었던 곳이다. 그리고 금장대 아래에 예기청소(藝妓淸沼)가 위치하는데, 이곳은 김동리의 단편소설인 <무녀도(巫女圖)>의 창작배경이 된다. 그야말로 금장대는 시대를 달리하면서 여러 유적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공존하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금장대의 주변으로는 화랑들의 맹세를 담은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이 발견되었으며, 극락왕생을 염원하던 신라시대 절터⁴⁾가 남아 전하고 있으며, 많은 수의 고분이 존재하고 있기도 하다.

2) 경주의 삼기(三奇)는 금척(金尺), 옥적(玉笛), 화주(火珠)이고, 팔괴(八怪)는 남산부석(南山浮石), 문천도사(文川倒沙), 계림황엽(鷄林黃葉), 압지부평(鴨池浮萍), 백물송순(栢栗松筍), 금장낙안(金丈落雁), 불국영지(佛國影池), 나원백탑(羅原白塔), 서산모연(西山暮煙), 금오만하(金籠晚霞)를 말한다.

3) 암각화를 비롯해서, 석장사지, 금장사지, 고인돌 등 금장대를 중심으로 한 유물과 유적에 대해서는 1994년을 시작으로 최근에까지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한 문화재 조사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석장사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1994; 「석장동유적」,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1996; 「석장동유적Ⅱ」,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1998; 「석장동유적Ⅲ」,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2002; 「경주 지역 유적 시·발굴조사 보고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2002; 「경주 석장동 876-5번지 다가구주택 신축부지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계림문화재연구원, 2010.11; 「경주 석장동 암각화 주변 금장대 복원사업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계림문화재연구원, 2011.7; 「경주 석장동 암각화주변 금장대 복원사업 부지 매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계림문화재연구원, 2011.7.

4) 금장대 가까이 양지스님이 주석하던 석장사지(錫杖寺址)가 있다. 이 절터에서 임신서기석이 발견되었다. 석장사지는 영지스님이 창건한 절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권 4. <良志使錫>조에 나온다. “양지는 여러 가지 기예에도 두루 능통하여 신묘함이 비할 데가 없었다. 또 글씨와 그림을 잘 그려 영묘사의 장육삼존 및 사천왕상과 아울러 전각과 탑의 기와와 사천왕사 탑 아래의 8부신장과 법림사의 주불삼존 및 좌우 금강신 등이 모두 그가 만든 것이다. 영묘사와 법림사 두 절의 현판을 썼고, 또 일찍이 벽돌을 다듬어 작은 탑 하나를 만들고, 아울러 부처 삼천불을 조각하여 그 탑안에 안치하고 그 탑을 절가운데 모시고 예를 올렸다. 영묘사의 장육삼존을 만들 때 스스로 선정에 들어가 삼매에서 빈 부처를 모형으로 하였다. 그래서 온 성안의 남녀들이 다투어 진흙을 나르면서 풍요를 불렀다.”

본 연구는 이처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던 금장대와 금장대 주변에서 창작된 역사·문학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심상지리적(心象地理的)인 관점에서 금장대만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작업은 금장대가 지니는 문화적 가치와 의미, 그리고 금장대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자 했는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나아가 금장대 공간이 선사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이어가며 어떤 의미로 사람들에게 다가갔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심상지리(心象地理), 공간(空間) 인식의 바로미터(Barometer)

금장대는 날아가는 기러기가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날아가는 것을 멈추고 내려와 앉았던 곳이라 하였다. 기러기가 날기를 멈추고 내려앉을 만큼 아름답던 공간이었기에 경주의 문인들은 이곳을 많이 찾았다.

경주뿐만이 아니라, 중앙에서 벼슬하였던 문인들까지도 이곳을 찾았는데, 영의정에 오르고 장기에 유배를 와서 배소에서 죽었던 퇴우당(退憂堂) 김수흥(金壽興, 1626-1690)이나, 강원도 관찰사를 지내고, 동지의금부사를 역임한 도촌(道村) 강홍중(姜弘重, 1577-1642) 등이 그들이다.

특히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1563-1633)가 당대 제일의 학자라고 칭찬했던 동명(東溟) 김세렴(金世濂, 1593-1646)은 「해사록(海槎錄)」에서, 김수흥(金壽興)은 「남정록(南征錄)」에서, 강홍중(姜弘重)은 「동사록(東槎錄)」⁵⁾에서 금장대를 직접 언급하고 있다.

5) 姜弘重의 「東槎錄」(1975년 간행)과 金世濂의 「海槎錄」(1975년 간행)은 한국고전번역원(<https://db.itkc.or.kr>)에서 번역(『國譯 海行摠載』),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고

“1660년 3월 10일, 채주부와 법당에 잠시 앉아 있다가 날이 저물어 자리를 파하였다. 금장대에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강가에 이르러 금장대를 바라보니 다만 물가의 황폐해진 언덕이었다. 바람도 날씨도 좋지 않아 오르는 것을 그만두고 돌아갔다. 경주를 두루 바라보면 승지가 봉황대보다 낫다고 말한다.”⁶⁾

“1624년 9월 10일, 저녁에 비. 경주(慶州)에서 머물렀다. 조반 후에 상사·종사와 함께 봉황대(鳳凰臺)에 나가 구경하였다. 봉황대는 성 밖 5리쯤에 있으니, 곧 산을 인력으로 만들어 대(臺)를 세운 것이다. 비록 그리 높지는 않으나 앞에 큰 평야(平野)가 있어 안계(眼界)가 흰하게 멀리 트이었다. 이를테면 월성(月城)·첨성대(瞻星臺)·금장대(金藏臺)·김유신 묘(金庾信墓)가 모두 한 눈에 바라보이니, 옛 일을 생각하매 감회(感懷)가 새로워져 또한 그윽한 정서(情緒)를 펼 수 있다.”⁷⁾

“1636년(인조 14년) 9월 3일(갑진), 흐림. 경주를 떠나 봉황대(鳳凰臺)에 올라갔다. 봉황대는 홍살문 밖에 있는데 높이가 수십 길이다. 흙을 쌓아 만든 것이라 하는데, 이런 것이 성 남쪽에 거의 열이나 벌여 있어, 옛 도읍은 반드시 대의 남쪽에 있었음을 상상하게 된다. 반월성(半月城)이 남쪽에 있고, 김유신(金庾信)의 묘가 서쪽에 있고, 포석정(鮑石亭)·첨성대(瞻星臺)·금장대(金藏臺)가 모두 아득히 바라보인

있다.

- 6) 金壽興, 『南征錄』, 『退憂堂集』, 卷10, “與蔡主簿少坐法堂 向暮而罷 欲往金藏臺 馳到川邊望之 只是一荒丘臨于水上 風日不佳 不登而返 其通望則勝於鳳凰臺云”
- 7) 姜弘重, 『東槎錄』, 〈九月十日辛酉〉, “夕雨 留慶州 食後與上使從事出遊鳳凰臺 臺在城外五里之內 卽造山而爲臺者也 雖不甚高 而平臨大野 眼界闊遠 如月城瞻星臺金藏臺金庾信墓 皆在四望眺覽之中 感古興懷 亦足以暢絃幽情 風德鍾在臺下 卽新羅舊都之物 亦古迹也 有徵兵動衆之事 則擊之云 府尹及興海盈德皆會 方奏樂設酌 風雨驟至 卽捲還館裏 生員崔東彥來見”

다.⁸⁾

위의 글에서 퇴우당을 비롯한 여러 선비들은 경주 방문하여 유적지를 관람하면서 굳이 금장대를 오르려 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금장대의 무엇이 특별해서 이곳을 오르려 했을까. 이들은 모두 날씨가 좋지 않아 금장대를 오르지 못했다. 하지만 멀리서라도 금장대를 바라보고자 하였다. 이는 경주 유람에 있어서 금장대가 필수 코스였다는 점을 말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경주를 찾은 인물 중에는 매계(梅溪) 조위(曹偉)가 있다. 성종 때 도승지를 역임했던 매계는 감사(監司)로서의 명령을 받고 부임하는 길에 경주를 찾았고, 경주를 유람하면서 자신의 소회를 시로 적었다. 조위가 쓴 <계림팔관(鷄林八觀)>이 그것이다. <계림팔관>은 영묘사를 비롯해서 경주의 여덟 곳을 다니며 쓴 시이다, 조위가 다녔던 곳엔 당연히 금장대(金藏臺)가 포함이 되어 있다.

조위는 <계림팔관 병서>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계림은 신라의 고도(古都)로서 변화했던 문물(文物)이 지금은 다 사라졌으나, 그 유적(遺跡)은 역력히 셀만하다. 내가 감사(監司)의 명을 받잡고 부임하는 길에 (...)신라의 고적을 두루 보고 배회(徘徊) 감개(感慨)하여 이따금 시로 읊조린 것이 있는데, (...)그 중 (...) 금장대는 계림을 굽어보아 일망무여(一望無餘)로 한 도성의 으뜸가는 승지(承旨)에 읊시(律詩)로 읊어 나중에 (경주로) 오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한다.”⁹⁾

8) 金世濂, 「海槎錄」, <崇禎九年丙子 九月初三日甲辰> “陰 發慶州 登鳳凰臺 臺在紅門外 高數十丈 言是築土所成 若此者羅列城南殆十數 舊都想必在臺南矣 半月城在南 金庚 信墓在西 鮑石亭瞻星臺金藏臺 俱莽蒼可望”

9) 申用漑、金詮、南哀, 『續東文選』 권3, <鷄林八觀 并叙>, “鷄林新羅古都 繁華文物 今皆湮沒 而遺跡則歷歷可數 余監司符 道出于此 首謁我太祖真殿 遍觀新羅古跡 徠

위 글은 『속동문선』에 실려 있는 글이지만, 『매계집』에도 실려 전한다. 이 글에서 금장대에 대한 첫 감회가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느낄 수 있다. 매계는 금장대를 ‘일망무여(一望無餘)’의 공간이라 했다. “인간은 세상에 거주하는 존재이며, 거주 문제는 인간실존의 문제와 직결된다.”¹⁰⁾라고 했듯이, 인간 존재(存在)와 공간(空間)에 대한 문제는 실존(實存)의 문제와 직결되며, 사유(思惟)의 문제와도 관계된다.

매계가 바라본 금장대에 대한 존재론적인 공간담론은 인문지리적(人文地理的)인 측면에서, 심상지리적(心象地理的)인 관점에서 인간 존재와 공간의 정체성으로 확장되어 나아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소봉대라는 공간에서 노래한 회재 이언적(1491-1553)의 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地角東窮碧海頭 동으로 땅이 다하고 푸른 바다 시작되는 곳
 乾坤何處有三丘 하늘과 땅 어디에 신선이 사는 곳이 있을까
 塵寰卑隘吾無意 비루하고 좁은 티끌 세상에 나는 뜻이 없으니
 欲駕秋風泛魯桴 가을바람에 배 띄워 신선의 세상으로 가고 싶구나¹¹⁾

작은 봉수대가 있었기에 소봉대라 불렀던 이곳을 27세의 회재가 찾아왔다. 그리고 회재는 “까마득히 펼쳐져있는 광활하고 드넓은 동해를 바라보면서, 작은 일에도 好·不好하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의 비루함을 안타까워하며, 티끌 같은 세상을 벗어나고픈 마음을 드러내면서 이곳이 신선의 세계로 인도해주는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徊感慨 間有形於吟詠者 亦目之曰八觀 非敢效坡也 所作蓋止此耳 如靈妙寺金藏臺 雖無可紀之事 然靈妙創於唐貞觀 歸然獨存 金藏俯視鷄林 一望無餘 最爲一都之勝 用是并詠以近體詩 以遺後之來遊者”

10) 강학순, 『존재와 공간: 하이데거 존재의 토폴로지와 사상의 흐름』, 한길사, 44면 참조.

11) 李彥迪, 『晦齋集』卷1, <小峰臺>.

끝은 시작을 의미하기에 동쪽 땅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찾는 회재, 환란의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작은 봉수대[소봉대]에서 회재는 우리 삶의, 우리 세상의 어지러움을 떠올린다. 그러면서 동쪽 땅의 끝에서 바다를 응시하며 이렇게 묻는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찾는 곳은 어디에 있을까?’¹²⁾

이처럼 소봉대라고 하는 공간은 회재에게 신선의 세계로 가는 공간이었고, 꿈을 꾸게 하는 공간이었다.

소봉대는 회재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공간이었다. 이는 칸트가 말한 “공간은 외감(外感)의 모든 현상의 형식, 곧 감성(感性)의 주관적 제약이며”, 만약 “주관적 제약을 벗어난다면 공간의 표상은 무의미하다.”¹³⁾는 것과 동귀에 있다. 다시 말하면 지리적 공간에 대한 인식은 이를 바라보는 사람의 주관과 경험적 실재성이나 선험적인 관념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심상(心象), 곧 ‘마음으로 그려지는 감각적인 모습이나 느낌’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심상의 이러한 개념은 대상을 심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개별성과 특수성에 기인하여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전체주의의 관점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아니라, 개별적인 것을 특수한 것을 인정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매계와 회재가 ‘금장대와 소봉대에서 노래한 세계의 이미지’는 바로 심상지리적인 개념이다. 공간에 대한 개별적 바로미터(barometer)로써 공간 이해의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리(地理)라는 공간(空間)을 주관적, 개별적 심상[이미지]로 개념화해서 개인의 관점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

12) 신상구, 『치유의숲』, 인문과교양, 2020, 230면 참조.

13) 이영수, 「Kant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연구: Einstein의 상대성 이론에 나타난 “시간과 공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1985, 13-14면 내용 참조.

다. 이는 하나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각기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달리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심상지리(心象地理)의 관점으로 바라본 금장대(金藏臺)

3.1. 일망무여(一望無餘)한 승지(勝地)

금장대를 다녀간 조선의 선비들을 살펴보면, 그 시기는 주로 1450년대부터 1600년대 후반까지가 많다. 곧, 조선 초기에 금장대를 주로 찾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매계 조위가 경상 감사(監司)로서의 명령을 받고 부임하는 길에 경주의 유적지를 두루 다니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시로 적었다고 언급하였다. 조위가 다닌 영묘사를 비롯한 여덟 곳의 승지(勝地)는 경주를 대표하는 곳이며, 경주를 오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 곳이었다.

금장대를 처음 본 조위는 “계림을 굽어보아 일망무여(一望無餘)로 한 도성의 으뜸가는 승지”라고 금장대를 노래하고 있다.

그러면 매계 이후 선비들은 금장대를 어떻게 이했을까. 만주(晚洲) 정창주(鄭昌胄, 1606~1664)가 쓴 <금장대에서(金粧臺)>라는 시를 보자.

金臺清曠冠鷄林	금장대 맑고 탁 트이고 계림에서 우뚝하여
暇日登臨豁素襟	틈나면 올라 답답한 마음을 트이게 하네
袞袞長流包綠野	넓고 길게 흘러 푸른 들판 감싸고
娟娟遠岵列瑤簪	예쁘면서도 멀리 난 골짜기는 올비녀처럼 벌려있네
風歸麥壟蒼波亞	바람은 보리언덕을 돌아 푸른 물결을 따르고

露浥芳樽玉液斟 이슬을 머금은 향기 나는 술통의 술을 기울이네
 却下晴沙終晚景 내려와 깨끗한 모래 위를 거닐며 오랫동안 풍경 만끽하니
 (각하청사종만경)
 一溪魚鳥揔知心 한 시내의 물고기와 새가 모두 내 마음을 아네¹⁴⁾
 (일계어조양지심)

조위가 느낀 것 같이 정창주도 금장대에 서서 일망무여(一望無餘)의 호연(浩然)함을 만끽하고 있다. 금장대는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맑고 탁 트인 금장대에 서면 답답하던 가슴이 시원해진다고 하고, 푸른 들판을 감싸고 휘돌아가는, 골짜기를 따라 길게 이어져 있는 서천의 물줄기는 예쁘면서도 널리 펼쳐져 있다. 이 때 바람이 보리가 핀 언덕을 따라 스쳐 지나자 물결이 일어나니, 향기 나는 술잔을 기울여 마시지 않을 수 없다. 그러고는 홀로 깨끗하고 고운 모래 위를 거닐면서 무위자연하는 기쁨에 행복해 한다.

정창주는 혼자서 이 기분을 만끽하고자 했다. 금장대에서 느끼는 이 기분을 그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았다. 금장대에서 연비어약(鸞飛魚躍, 물고기가 뛰어 오르고 솔개가 하늘을 나는)의 자연의 이치를 만끽하면서 무욕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시인의 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선조 때 이조좌랑을 역임하면서 왕을 의주까지 호종(扈從)했던 오봉(五峯) 이호민(李好閔, 1553-1634)의 시를 보자. 이호민은 왜군이 부산에서 퇴각했다는 소식을 듣고 금장대에서 시를 썼다. <금장대에 올라서(登金藏臺)>라는 시다. ‘동지를 하루 앞둔 날, 부산의 적들이 새로 물러갔다(時冬至前一日 釜山賊新退)’는 소식을 듣고 쓴 시다.

14) 鄭昌胄, 『晚洲先生集』, 卷2, <金粧臺 在月城西>.

千古興王地 천년 고도 왕업이 흥한 곳
 群山鳳舞來 오악(五嶽)삼산(三山)에 봉황이 춤을 추며 온다¹⁵⁾
 明朝日南至 밝은 아침 해는 남쪽으로 이르고
 昨夜賊東回 어젯밤 도적들은 동쪽으로 돌아갔구나
 風月詩仙去 맑디 맑은 선비를 기리는 시선(詩仙)은 가버리고 나니
 關河玉笛哀 성 아래에서 울리는 옥피리소리 슬프다
 平生感舊意 평생 옛 정취 느껴워하다
 一嘯強登臺 휘파람 불며 힘차게 대에 오르네¹⁶⁾

이호민은 아침 해가 돋아 오르는 새벽에 금장대에 올라 오악삼산(五嶽三山)으로 둘러싸인 신라의 도읍지인 경주를 보면서, 왜적이 물러나고 이제 태평한 세상이 되었음에 감개무량해 한다. 그러면서 나라의 흥망을 생각하다가 힘차게 휘파람을 불면서 금장대로 오르는 이호민의 모습이 역력하다.

이호민이 부산에서 왜적이 퇴각하던 날 금장대에 오른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1주일 만에 경주읍성이 함락되었고, 이후 경주읍성을 회복하기 위한 서천전투의 전초지가 금장대였다는 사실이다.¹⁷⁾

15) 시에서 '봉무(鳳舞)'는 봉황이 춤추고 노는 모습을 뜻하기도 하고, '세상이 태평한 것'을 뜻하기도 한다. '군산(群山)'은 옛 서라벌(경주)를 둘러싼 오악(五嶽) 삼산(三山)을 뜻한다.

16) 李好閔, 『五峰先生集』, 卷3, <登金藏臺 時冬至前一日 釜山賊新退>.

17) 1592년(임진년) 4월 14일에 왜군이 부산 앞바다를 침입하였고, 그것이 임진왜란의 시작이었다. 왜군은 동래부를 따라 올라와서 그 달 21일에 加藤清正의 군대가 경주읍성을 점령하여 병참기지화 하였다. 이후 선조 25년 6월 9일 영남의 12고을의 의병장 132명이 경주 남천의 상류인 월성에 모여 문천희맹을 맺고 경주읍성의 탈환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그 해 7월 27일 영천읍성을 탈환하고, 그 여세를 몰아 8월 21일과 9월 7일 8일 2차례에 걸쳐 경주읍성을 탈환하기 위해 전투를 했다. 경주읍성 탈환에 참여한 고을 및 병력 수는 『선조수정실록』, 『징비록』, 『난중잡록』, 『제조번방지』 등에는 16읍 1만 여 명으로 되어 있으나, 손엽의 『용사일기』에는 11읍 37,000여 명으로 되어 있고, 최락이 지은 『경주선생안』에는 16읍 50,000여 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최효식, 『임란기 경상좌도의 의병항쟁』, 국학자료원, 2004, 51~57면 참조.



경주도회 경주부(1906)

손엽의 『용사일기(龍蛇日記)』를 보자.

“이때 왜군은 의병군의 동태를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 언양에 있던 병력을 뽑아 읍성 근처와 백률산, 향교 등에 매복시켰다.”¹⁸⁾

“관군과 의병군은 8월 21일 새벽 경주성 문 앞에 도착했다. 그리고 읍성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금장대 위에 지휘본부를 둔다. 그리고 금장대 정상에 올라 아군의 활동상황과 적의 변동을 살피며 전투를 했다.”¹⁹⁾

용사일기에서 손엽은 서천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의병군에 대처하기 위해 언양에 주둔하고 있던 왜군을 경주읍성과 백률산, 그리고 향교 등에 매복 시킨 것과, 관군과 의병군이 왜군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금장대에 지휘본부를 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왜적이 물러난 뒤에 이호민이 금장대를 오른 것은 읍성탈환을 위한 전초기지에서 전쟁이 끝난 감회를 느끼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구절에서 이호민이 새로운 태평의 세상을 염원하며 힘차게 금장대에 오름은 一望無餘한 금장대에서 새로운 세상을 열고픈 바람이 담겨 있는 것이다.

3.2. 인간 삶의 부질없음을 인식하는 공간

18) 孫曄, 『龍蛇日記』, 「壬辰4月21日條」.

19) 앞의책, 같은곳, “登小山 上望府內 我軍始入 焚蕩城底人家”

금장대는 아름다운 풍광을 지니고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기만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나, 인간 삶의 영화(榮華)나 허무(虛無)를 느끼는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곳을 찾는 시인묵객들에게 금장대는 자연의 영원함에 비해 인간 삶의 덧없음을 인식하는 공간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조위의 <금장대에서(金藏臺)>라는 시를 보자.

坡陀斷岸俯江阜	험준한 끊어진 벼랑에서 강을 굽어보나니
乘興登臨望眼遙	흥이 일어 올라가 저 먼 곳을 바라본다
古家纍纍歛石獸	고가는 연이어 이어졌고, 석수는 세워져 있는데
靑山隱隱聳金鰲	은은한 푸른 산에 금오가 솟구쳐 있네
傷心廢苑煙花鬧	황폐한 동산엔 연기와 꽃이 어지러이 날리니 마음은 아 프고
滿目空城答廟高	눈 아래 빈 성에는 탑묘만이 높구나
天地無情如昨日	천지는 무정하지만, 어제와 같은데
人間蟻蠓等秋毫	인간은 하루살이와 조금도 다름이 없구나 ²⁰⁾

시인은 암각화가 새겨져 있는 금장대의 벼랑에 서있다. 이곳에서 시인은 서천 너머 고가(古家)가 이어져 있는 경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호석(護石)이 줄이어있는 능묘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저 멀리 푸르른 남산과 그 사이에 우뚝 솟은 금오산의 정상을 응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무도 찾지 않고, 연기와 꽃만이 가득 피어있는 금장대에 주목하고 있다.

‘천지는 무정하여 어제와 같은데, 인간은 하루살이와 조금도 다름이 없구나’라고 말하는 시인의 마음엔 자연의 영원함과 인간의 삶의

20) 申用漑·金詮·南袞, 『續東文選』, 卷8, 〈金藏臺 二首〉중 첫 수.

澹澹長空鳥不過 고요한 하늘에 새도 지나지 않는구나
 惟有金藏臺下水 오직 금장대 아래로 흐르는 물이
 春風猶帶舊煙波 봄바람에도 오히려 옛 안개 낀 물결을 두르고 있네²²⁾

고요한 하늘에 새도 지나지 않을 만큼 아무도 찾지 않는 곳, 하지만 금장대 아래로 흐르는 물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권위는 느끼고 있다. 국가의 흥함, 삶의 영화로움은 모두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음을 도도히 흐르는 물결을 통해서 다시금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금장대를 노래하는 대부분의 시는 이러한 시적 정서를 적고 있다.

인간 삶의 영원하지 못함과 자연의 영원함을 노래한 문인과 관료는 우정(憂亭) 김극성(金克成, 1474-1540)을 비롯하여 금계(錦溪) 황준량(黃俊良, 1517-1563), 동악(東岳) 이안눌(李安訥, 1571-1637), 팔곡(八谷) 구사맹(具思孟, 1537-1604), 남창(南窓) 김현성(1542-1621), 오한(鰲漢) 손기양(孫起陽, 1559-1617), 봉려(蓬廬) 김철우(金哲佑, 1569-1653), 류하(柳下) 홍세태(洪世泰, 1653-1725) 등이다.

이중 경주부윤(慶州府尹)을 지낸 이안눌이 쓴 <題詠春軒三首 영춘헌이라는 제목으로 3수를 적다>를 보자. 이 시는 오봉 이호민의 <금장대> 시의 운을 사용(用板上五峯李相公金藏臺韻)>하여 이안눌이 쓴 것으로, 이호민이 동지를 앞 둔 날 부산의 적이 일본으로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서 적은 <금장대에서>라는 시의 ‘來, 回, 哀, 臺’ 운자를 빌려서(차운하여) 적은 것이다.²³⁾

22) 權暉, 『玉峰先生文集』, 〈金藏臺〉.

23) 하지만 금장대라는 제목이 아니라 ‘영춘헌’이라는 제목으로 적고 있어 특별하다. 지금껏 금장대를 노래한 시가 모두 <금장대>였는데 반해 이 시가 유일하게 ‘영춘헌(迎春軒)’이라 적고 있다. 그렇다면 금장대에 지어졌던 조선시대 건물의 이름이 ‘영춘헌’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대개의 시들이 모두 대(臺), 고대(高臺), 황대(荒臺)라고 적고 있고, 헌(軒)이나, 누(樓), 정(亭)이라는 적고 있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이안눌이 ‘영춘헌’이라고 적고 있는 것은 특별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왜 ‘누’라 하지 않고 ‘헌’

嶺外鷄林府	령의 밖에 계림부
鼇山海上來	오산의 바닷가를 왔네
一從城北過	한 번 성북쪽을 지나가다가
五見斗西回	다섯 번이나 두서를 돌아보았네(...) ²⁴⁾
千載孤雲後	천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長庚始一來	처음으로 이곳에 왔네
鵲鷄聲闕寂	까치와 닭소리 고요하지만
龍虎勢縈回	용과 호랑이의 기세는 굽이굽이 담겨있고
文物衣冠盛	문물과 의관은 성하지만
兵塵鼓角哀	말발굽소리 북과 나팔 소리 오히려 슬프네
無窮弔古恨	끝없이 옛 슬픔 조상하는데
珠玉照荒臺	밝은 햇살이 거친 누대를 비추어주네 ²⁵⁾
北嶽連雲起	북악에는 구름이 연이어 일어나고
西川繞郭來	서천은 성곽을 둘러 이어 오네
城荒塔孤立	성은 황폐하고 탑은 외로이 서 있는데
野曠鳥雙回	황량한 들판엔 새 두 마리 나란히 돌아 나르고 있네
馬井基神異	백마가 내려온 우물 ²⁶⁾ 에서 신이한 기틀 세웠지만
魚亭醉景哀	포석정 ²⁷⁾ 에서의 취한 모습은 슬픔이 되었네
無憑問三姓	삼성(三姓)과 구성(九聖)을 묻고자 하였지만

이라고 하였을까? 주목할 필요가 있다.

24) 李安訥, 「月城錄」, 『東岳先生集』, 卷11. <題迎春軒三首. 用板上五峯李相公金藏臺韻>중 첫 수.

25) 앞의 책, <題迎春軒三首. 用板上五峯李相公金藏臺韻>중 둘째 수.

26) 金富軾, 「新羅本紀」, 『三國史記』, <始祖赫居世居西干>, “楊山麓蘿井傍林間 有白馬跪拜狀 馬忽不見 有大卵剖之 嬰兒出焉 收養之 六部人以其生神異 立爲君 是爲新羅赫居世”

27) 앞의 책, <景哀王>, “甄萱以救兵未至 以冬十一月 掩入王京 王與妃嬪宗戚 遊鮑石亭宴娛 不覺賊兵至 倉猝不知所爲 王與妃奔入後宮 宗戚及公卿大夫士女四散奔走逃竄(…)”

九聖但空臺 다만 누대 비어있어 물어볼 곳 없네²⁸⁾

시의 제목에서 보듯이 이 시는 ‘봄이 든 금장대’를 노래 한 시이다. 하지만 차운한 운자인 ‘來, 回, 哀, 臺’의 정조가 세 수의 시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곧, ‘래(來)’, ‘회(回)’는 봄이 돌아왔다는 사실과 함께, 동악 이안눌 자신이 신라가 멸망한 후 천년의 시간을 지나 경주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절의 흐름과 시간의 흐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영원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애(哀)’와 ‘대(臺)’에서는 시간의 흐름 속에 국가의 사라짐과 사람의 삶의 허망함 등 금장대에서 느끼는 슬픔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반복됨, 영원함에 비해, 국가의 흥망과 인간 삶의 덧없음에 대한 슬픔이 모두 시에 녹아 있다.

다음의 김극성의 <금장대에서(金藏臺)>²⁹⁾를 보자. 이 시는 금장대의 아름다움과, 나이듦과, 국가의 멸망이 기련(起聯)과 함련(頷聯), 그리고 경련(頸聯)과 미련(尾聯)에 극명하게 대비되어 드러난다.

斷岸坡陀枕碧流	끊어질 듯한 언덕, 비탈진 고개를 푸르른 강물 흐르고
黃茅如錦被汀洲	누른 띠는 비단 같이 물가를 덮고 있네
一天景物供詩眼	하늘 아래 뛰어난 풍광은 시인의 눈을 뜨게 하지만
萬古興亡入點頭	만고(萬古) 흥망(興亡)이 점처럼 들어오네
千疊煙巒環遠野	자욱히 이어진 연기는 고리되어 들로 멀어지는데
百年喬木認王州	백년의 교목이 임금이 살던 고을임을 알게 하네
淒涼湖海龍鍾客	쓸쓸하고 서늘한 너른 호수의 늙은 나그네
懷古登臨不耐愁	옛일을 회고하며 차마 슬픔을 이기지 못하네 ³⁰⁾

28) 앞의책, <題迎春軒三首。用板上五峯李相公金藏臺韻> 셋째 수.

29) 김극성은 금장대에서 두 수의 시를 남겼다.

30) 金克成, 『金先生憂亭集』, 卷3, <金藏臺>.

김극성은 금장대에서 금장대의 뛰어난 풍광을 말하면서, 그 속으로 다가오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말한다. 그러면서 여전히 사람들로 살아 숨쉬는 경주의 시가지에서 예전 신라의 수도를 만난다. 그야말로 쓸쓸하고 서늘한 기운의 서천의 금장대에서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3.3. 죽음을 통해 자기존재를 인식: 예기청소(藝技淸沼)와 모화의 꿈³¹⁾

<무녀도>는 금장대의 예기청소를 배경으로 모화의 무녀로서의 삶과 죽음을 그린 단편소설이다. 이 소설은 이렇게 시작한다.

“뒤로 물러 누운 어둑어둑한 산 앞으로 폭이 넓게 흐르는 검은 강물, 산마루로 들판으로 검은 강물 위로 모두 쏟아져 내릴 듯한 파아란 별들, 바야흐로 숨이 고비에 찬 이슬한 밤중이었다. 강가 모랫벌엔 큰 차일을 치고, 차일 속엔 마을 여인들이 자욱이 앉아 무당의 시나위 가락에 취해 있다. 그녀들의 얼굴들은 분명히 슬픈 흥분과 새벽이 가까워 온 듯한 피곤에 젖어 있다. 무당은 바야흐로 청승에 자지러져 뼈도 살도 없는 혼령으로 화한 듯 가벼이 쾌자자락을 날리며 돌아간다.”³²⁾

이 글에서 뒤로 물러 누운 어둑어둑한 산은 금장대이며, 폭이 넓게 흐르는 검은 강물은 금장대 앞에서 북천과 서천이 만나 형성된 예기청소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가벼이 쾌자자락을 날리며 혼령을 위로하

31) 모화는 <무녀도>의 주인공이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아들의 말을 찾아주면서 스스로 어머니의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 들어난다. <무녀도>는 경주출신의 김동리(金東里, 본명 김시중 1913-1995)가 금장대가 위치하고 있는 서천의 예기청소와 금장리를 배경으로 지은 작품이다.

32) 『韓國短篇文學 12名作集』, <무녀도>, 백미사, 1973, 203면.

며 굿판을 열고 있는 무당은 이 글의 주인공인 모화이다.

그러면 모화는 어떤 인물인가?

“모화는 주막에서 술을 먹다 말고 화랑이들과 춤을 추다 말고, 별안간 미친 것처럼 일어나 달아나곤 했다. 물으면 집에서 따님이 자기를 부르노라고 했다. 그녀는 수국 용신님께서 낭이따님을 잠깐 자기에게 맡겼으므로 자기는 그동안 말아 있는 것뿐이라 했다. 만약 이 따님을 정성껏 섬기지 않으면 큰어머님 되시는 용신님의 노여움을 살까 두렵노라고 했다.”³³⁾

그녀는 자신의 딸을 몸주인인 용신님의 딸로 인식하고, 세상만물에 귀신이 들어앉아 있다고 믿는 그래서 힘이 들더라도 굿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이런 모화에게 기독교를 신봉하고 무속을 철저히 부정하는 아들 옥이의 등장은 자신이 무녀이면서 어머니임을 자각하는 계기가 된다. 곧 옥이의 등장 이전에는 무녀로서의 자신에 대해서 그 어떤 회의도 없었으나, 아들과의 갈등과 대립을 통해서, 무녀로서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의 과정에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난다. 모화의 ‘인간존재’에 대한 성찰과 모색은 옥이의 죽음과 함께 극대화 된다. 그리고 마지막 굿판에서 어머니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

이 소설에서 모화의 마지막 굿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모화가 신이 아닌 인간의 삶을 택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신의 세계를 지키고자 했던 모화이지만 결국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발견하였다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 모화가 무속을 부정하는 아들인 옥이를 죽음으로 이

33) 앞의책, 209면.

르게 하는 응징의 굿판과, 병어리 딸인 낭이의 입을 열게 하는 치유의 굿판은 무녀로서 신의 생각을 대신하는 맹목적인 행위였다. 하지만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곧 신과 인간의 경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운명을 지니고 있는 모화가 어머니로서의 자신을 확인하고, 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굿판에서의 모습은 ‘나는 어떤 삶을 택할 것인가?’라는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에 대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운명적으로 정해진 무녀로서의 삶이기보다는 스스로의 가치와 의미를 위해 죽음조차도 달게 받아들이는 ‘모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곧, <무녀도>는 금장대라는 산과 그 아래 흐르고 있는 예기청소라는 강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신에 의해서, 운명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우리네 삶에 대해서 때론 맹목적으로 따라가기도 하고, 때론 갈등하고, 좌절하고, 번뇌하면서 살아가면서도, 때론 운명적인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 모색하는, 자신을 찾아가는 근원에 대한 성찰과 모색이라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얻을 수 있는 소설이다.

4. 결론 : 금장대에 대한 시대적 인식의 변화

이상으로 심상지리적 관점으로 금장대 공간을 살펴보았다.

금장대는 선사시대 때 제사를 지내는 신앙의 대상인 암각화에서부터, 죽음의 공간인 무덤과 공덕을 쌓고자 했던 절터, 경주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조선시대의 건물에 이르기 까지 다채로운 유적이 작인 이 공간 속에 모여 있었다. 이러한 예는 금장대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모

습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선사시대 금장대 공간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던 공간이었다. 금장대는 선사시대 때 제사를 지내는 신앙의 대상 암각화에서부터 죽음의 공간인 무덤과 고인돌 등이 존재하고 있다. 거기에 선사시대 사람들의 주거지도 함께 발견된다. 이렇게 볼 때, 선사시대의 금장대는 생활의 공간이면서도, 내세의 삶을 위해 기원하는 신앙의 공간이며, 이곳에서 죽음도 함께 맞이하는 공간. 곧, 삶과 죽음이 공존하던 공간이었다.

다음으로 신라[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는 죽음의 공간이면서 내세를 위해 기도하며 공덕을 닦는 공간이었다. 삼국시대에 들어서면 이곳은 죽음의 공간이 된다. 그리고 이 죽음의 공간에 불교의 서방정토 사상이 자리한다. 그래서 이곳은 죽은 이들을 위로하며, 현세에 수련과 공덕을 쌓아 내세에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를 기원하는 공간이 된다.

이곳에 신라화랑들의 수련터와 삼천불탑을 조성한 석장사지와, 금장대의 사리공양석상의 존재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신라시대의 화랑이라는 존재도 수련과 호국의 목표가 미래불인 미륵화신에 있었음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면, 화랑이든 탑이든 공덕을 쌓아 더 좋은 세상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염원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라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이곳은 불교의 유입에 따라 서방정토라는 개념이 형성되면서 주거의 공간이기보다는 죽음의 공간, 내세를 위해 기도하고 수련하며 공덕을 쌓는 공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금장대가 위치하고 있는 서천은 서라벌[경주,월성]의 서편으로 내세, 피안의 세계라는 인식이 강하였으므로 지치고 서러움 많은 중생들이 공덕을 닦고 심신을 달래고 마음의 평화와 사후의 염

원을 빌기 위한 공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이르면, 이곳은 자연의 영원함과 인간 삶의 부질없음을 인식하는 공간이 된다. 조선시대에 이르면 이곳은 시인묵객들이 ‘금장낙안’의 풍광을 즐기는 공간, 곧, 신라의 흥망을 생각하며, 한시문학 작품 속에 자연의 영원함과 인간 삶의 부질없음을 인식하면서 과거를 통해 오늘을 경계하는 공간이었다. 또한, 이곳은 임진왜란 때에는 경주읍성을 수복하기 위한 정찰기지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왜군들이 부산을 통해 동해로 물러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던 곳이었다.

마지막으로 현대에 이르면 이곳은 인간 존재에 대한 사색이 이루어지던 공간이었다. 김동리는 금장대를 배경으로 단편소설 <무녀도>를 창작한다. <무녀도>는 무녀 모화가 자신의 존재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이다. 무녀로서, 신의 대리인으로서의 ‘나’가 아니라, 스스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자각하고 그러한 삶에 행복해하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의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절대자에 의해 운명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의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자각하는 것, 이것이 모화의 죽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죽음의 미학이었다.

어쩌면, <무녀도>는 삶과 죽음이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위해 자신을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른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금장대 공간은 삶과 죽음, 그리고 인간 삶의 무상함과 부질없음, 생존을 위해서, 삶의 가치를 찾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이루어지던 공간이면서도 ‘나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던 죽음도 삶 이상으로 소중한 것임을 자각하는 그러한 공간이었다.

[ABSTRACT]

A Study on the Imagery Geography of Geumjangdae Space

Shin, Sang-goo(Uiduk University)

Geumjangdae is located in the western part of Gyeongju, and was called Western Jeongto during the Silla Period. Geumjangdae is one of the eight strange phenomena of Gyeongju, which was called Geumjangnakan because geese passing through the sky of Gyeongju took a rest. Geumjangdae has not only outstanding scenery, but also includes prehistoric rock paintings, Geumjangsa Temple Site, and Seokjangsa Temple Site.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it was also an outpost for the recapture of Gyeongju-eupseong Fortress. In addition, there is an expectant cleaning around a steep cliff under the gold pole, which is the background of the short novel "Munyeo-do." As such, Geumjangdae was created and coexisted with various relics during the different times, creating different cultures were formed. In addition, around Geumjangdae, pregnant calligraphy stones containing the vows of the galleries were found, which was also the training of the gallery. This study examined, analyzed, and studied historical and literary contents around Geumjangdae and Geumjangdae, where such diverse cultures coexisted, and examined Geumjangdae from a psychological point of view. The second chapter, we looked at the

concept of mental geography as a barometer of space, and the third chapter, we looked at the space of Geumjangdae from a mental geography perspective, focusing on the Confucian classics of Joseon Dynasty scholars, Chinese poetry and Im Nanilgi, and Kim Dong-ri's A Shaman's Story. And in conclusion, we looked at the changes in people's perception of Geumjangdae along the way of the times.

Geumjangdae was a place where life, death, and the futility and futility of human life, and for survival, intense efforts were made to find value in life, but when one realizes that death is more precious than life.

Key words: Geumjangdae, the Imagery Geography, The Western Paradise, Silla, A Shaman's Story, Petroglyph, battles of Geumjangdae

[참고문헌]

□ 기본자료(고문헌)

姜弘重, 『東槎錄』

具思孟, 『八谷先生文集』

權暉, 『玉峰先生集』

金克成, 『金先生憂亭集』

金世濂, 『海槎錄』

金壽興, 『退憂堂集』

金哲佑, 『蓬廬公遺稿』

金見龍, 『水月齋實記』

金玄成, 『南窓雜藁』

朴毅長, 『觀感錄』

孫起陽, 『聲漢先生集』

孫擘, 『龍蛇日記』

申用漑·金詮·南袞, 『續東文選』

李安訥, 『東岳先生集』

李好閔, 『五峰先生文集』

一然, 『三國遺事』

鄭昌胄, 『晚洲先生集』

崔浚, 『東京通志』

洪世泰, 『柳下集』

黃俊良, 『錦溪先生文集』

□ 기본자료(작품집)

韓國短篇文學 12名作集, <무녀도>, 백미사, 1973.

□ 단행본

- 강학순, 『존재와 공간, 하이데거 존재의 토폴로지와 사상의 흐름』, 한길사, 2011.
마르쿠스 슈퇴르, 정인모 · 배정희 옮김, 『공간, 장소, 경계』, 에코리브르, 2010.
슈테판 권첼 지음, 이기홍 옮김, 『토폴로지, 문화학과 매체학에서 공간연구』, 에코리브르, 2010.
신상구, 『치유의 숲』, 인문과교양, 2020.
최효식, 『임란기 경상좌도의 의병항쟁』, 국학자료원, 2004.

□ 논문

- 이영수, 「Kant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연구: Einstein의 상대성 이론에 나타난 “시간과 공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1985.
최민희, 「통일신라 3층 석탑의 출현과 조탑공덕경의 관계 고찰」, 『불교고고학』 제3호(위덕대학교박물관, 2003). 63-81면.

□ 문화재 조사보고서

- 「석장사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1994.
「석장동유적」,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1996.
「석장동유적Ⅱ」,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1998.
「석장동유적Ⅲ」,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2002.
「경주지역 유적 시·발굴조사 보고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2002.
「경주 석장동 876-5번지 다가구주택 신축부지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계림문화재연구원, 2010.11.
「경주 석장동 암각화 주변 금장대 복원사업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계림문화재연구원, 2011.7.
「경주 석장동 암각화주변 금장대 복원사업 부지 매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계림문화재연구원, 2011.7.